광양, 글로벌 해양시대 신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전남도 정책비전투어서 7대 비전 제시

철강 혁신·글로벌 물류 중심도시 조성

김영록 지사 "이차전지·철강·항만 선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광양시에서 열린 '광양시 정책비전 투어' 행사에 참석해 토론을 주재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 의견·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양시가 글로벌 해양시대 이차전지·철강·물류 등 신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4일 오후 광양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광양시 정책비전투어를 열어 "광양은 550리 섬진강이 만든 자연환경과 광양항, 포스코 등 산업이 완벽히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도시"라며 이같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전남연구원과 지역 맞춤형 미래 비전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정책비전투어는 6·3 조기대선 때문에 지난 3월 순천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후 이날 재가동됐다.

이날 정책비전투어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임형석·강정일 전남도의원,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광양은 가장 젊은 도시이자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로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고 철강·항만에서도 경쟁력 강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광양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어 전남연구원은 'K-첨단산업의 심장, 글로벌 해양시대 신성장거점 광양'을 주제로 지역 미래 발전 7대 비전을 제시했다.

7대 비전은 ▲K-철강산업 혁신·글로벌 친환경 철강도시 선도 ▲세계로 도약하는 이차전지 특화도시 ▲스마트항만 구축·글로벌 물류 중심도시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광양만권 교통허브 ▲1천만 관광객이 찾는 K-관광도시 ▲청년 벤처창업 허브도시 ▲고소득·친환경 광양형 미래농업 육성이다.

철강산업 혁신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 전환과 저탄소 순환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및 고부가 첨단소재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차전지 특화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허브,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ESS 등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을 통한 글로벌 물류 중심도시 도약의 경우 북극항로 환전 부두 진압항로 준설(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원활한 운항), 북극항로 연계 특화 물류단지 조성, 국내 최초 한국형 완전 자동화 부두 조성 등의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진 정책 토론은 김영록 지사가 광양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백운산·구봉산·섬진강 권역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봉산 전망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절실하다"며 "주차장 확장과 회전 교차로 설치, 안전난간대 정비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근휘 광양시 상이군경회장은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구축 건물로 노후화가 심각한 광양시 보훈회관의 신축 이전 사업비 5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이병만 광양시 관광협의회장은 도 무형문화유산인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 6억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보훈회관의 경우 도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다.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우선 두 사업 모두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수관 건립은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 우선 철거비·설계비 1억6천만원은 협의가 된 상태로 추후 건립 사업비는 국가유산청을 통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광양만 환경포럼 소속 주민 허형태씨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 권한을 시·군에 재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안성수 광양시벤처기업협의회장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 전력 판매 대금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소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과, 계통문제 해소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광양시가 이차전지 선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되도록 지원해 달라는 안성수 광양시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건의도 나왔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문화플랫폼 '디어마이광주' 전면 개편

시민 맞춤형 콘텐츠·모바일앱 기능 개선

예술인 홍보 지원 등 문화 생태계 강화

광주시가 시민의 문화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Dear My Gwangju)'를 올해 하반기 전면 개편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디어마이광주'는 공연·전시·축제·교육 등 광주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전국 최초 문화예술 커뮤니티형 공공 플랫폼이다.

예술인과 시민, 문화기관 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디지털 문화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어마이광주'는 2019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 정식 개설했다.

현재 주간 문화정보 콘텐츠 '광주 이번주 놀거리', 문화행사 리뷰 공유 커뮤니티 '광주문화 리뷰투어', 예술 콜라보 프로젝트 '예술가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이번 고도화를 통해 ▲시민 맞춤형 콘텐츠 제공 ▲모바일 앱 기능 개선 ▲예술인 홍보 지원 확대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 전방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신규 기획 콘텐츠인 '디마광 왔다감(문화체험 인증)', '광주 아트풀코스'(문화 나들이 추천코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5·18 기념행사'와 같이 시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특화 카테고리로 구성해 주요 문화행사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인다.

또 이용자 성향을 분석해 관심 분야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한다.

광주시는 공연·전시 티켓 이벤트, 포인트 적립 미션, 굿즈 증정 등 시민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도 대폭 확대한다.

오는 7월14일까지 가입자 확대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계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당첨자에게는 대중음악 콘서트 및 뮤지컬 관람권을 제공한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은 "디어마이광주는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라며 "보다 풍성한 콘텐츠와 정교한 서비스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 대책 마련 시급"

박미정 시의원 "백신 종료…10월까지 공백"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6월 말 종료되면서 '공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제1차 추경안 심사에서 "2024-2025절기 백신 접종이 오는 30일 종료돼 10월까지 약 3개월 간 접종 공백이 발생한다"며 고위험군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만·싱가포르·중국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보건소에 남은 코로나19 백신은 총 960회 분(동구 60회 분·서구 300회 분·남구 200회 분·북구 200회 분·광산구 200회 분, 18일 기준)이다.

30일 이후 남은 백신은 질병관리청에서 전량 회수할 예정이며 광주시와 질병관리청은 이후 접종 재개 전까지 치료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1회 추경에서 오는 10월 재개되는 2025-2026절기 신규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82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시비 27억4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박미정 의원은 "예산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종 공백기 동안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백신 수급과 접종 시기를 고려한 유연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